

참회와 죽비 소리로 세상을 맑히자

진각종, 제11대 성초 총인 추대법회

“비로정상의 광명이 오봉을 비추어서 중생의 심전을 환하게 밝히니 진각종문이 만다라 법계를 열어 가리라.”

진각종(총리원장 혜정)이 제11대 성초 총인 추대법회를 11월 24일 진각종 총인원에서 마련하고, 진각종지의 실현을 위해 용맹정진 할 것을 서원했다.

성초 총인은 1971년 남부십인당 주교를 지냈으며 제3-9·11대 종의회 의원을 역임했다. 1997년에는 제25대 총리원장에 취임했고, 2002년 종사를 폄수했다. 2006년 제12대 종의회 의장으로 활동했고, 2007년에는 해원십인당 주교를 지냈다. 또한 총리원장 재임시 진각복지재단을 설립해 진각종의 불교 사회복지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진각종 종지 구현을 위해 노력해 왔다.

진각종 교육원장 겸정 정사는 강도발원문을 통해 “추대법회는 그동안 종단과 사회의 소통에 큰 인연과 역할을 보이신 성초 총인 예하의 정진력을 더욱 수승하게 하려는 시대 법문이 될 것이다. 그 공덕으로 종단이 화합승단 본연의 자리에서 시대

와 사회를 정도로 인도하고 정화하는 종교적 본분을 다해가는 큰 계기가 되기를 서원한다”고 밝혔다.

총리원장 혜정 정사는 추대사에서 “사라져가는 믿음을 중흥시키기 위해 새로이 믿음을 창조하신 진각성종 회당종조의 범종을 11번째로 승계 상승하는 뜻 깊은 날이다. 성초 총사는 참회와 서원의 죽비소리로 진언행자의 수행과 대중교화를 이끈 큰 스승이다. 이런 위업은 우리시대 불자로서 자비와 희사의 실천적 삶을 이끄는 원력이 됐다”고 말했다.

강도발원과 추대사 후 성초 총인은 강도발원문을 내려 중생과 나라, 인류의 안전(安存) 열락(悅樂)이 법계에 두루 하도록 용맹 정진할 것을 강조했다.

성초 총인은 “못 생명의 자성참회가 샘물처럼 솟아오르고 심인정도는 사바에토를 청량하게 정화하니 말법 시대에 진각정도 찬연히 밝아오느냐”라고 말했다. 성초 총인은 또 “심인법문을 이어받아 사바세계의 등명으로 삼고자 한다. 참회의 약방문은 불법을 체도하여 세간을 정화한다. 심인의 진실방편은 심성을 깨쳐서 과학문명을 옹계 쓸 수 있게 한다. 진

각의 정법설법은 진언의 총지문을 열어 중생 업을 다스리게 한다”며 이 법문으로 화합종단의 기풍을 새롭게 하겠다고 밝혔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성초 총인의 추대법회에는 2000여 인사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도헌 前 총인과 일정 정사 등 진각종 원로들과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직무대행 무원 스님, 천태종 前 총무원장 정산 스님, 관음종 총무원장 흥과 스님, 총화종 총무원장 남정 스님,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 대만 불광산사 의인 스님, 정의화 국회부의장, 강봉석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 신계륜, 신정지 문화원 이사장, 커피 프스트 커피라 주한네팔대사 등이 참석했다.

추대 법회에서는 각계 인사들의 축하 메시지도 이어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강봉석 문화체육관광부 총무실장이 대독한 축사에서 “성초 정사는 우리 사회의 화합과 민족통일을 위해 힘써주셨다. 성초 총인의 지도 아래 그 가르침이 널리 확산돼 부족함을 수행으로 더하고 넘침을 자비희사(慈悲喜捨)로 나누는 진각종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11월 24일 진각종 총인원에서 열린 제11대 총인 추대법회에서 성초 총인은 화합 종단의 새기풍을 강조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자승 스님이 대독한 축사에서 “성초 총인은 진각복지재단을 설립해 한국불교가 일상 속에서 자비를 펼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제 그 위업을 계승하고 다시금 새로운 서원으로 진각종을 이끌고 한국불교 발전을 위해 서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신계륜 前 민주당 의원이 대독한 축사에서 “위를 바라보지 않고 작은 실천과 수행

으로 낮은 곳을 바라보는 종교인의 자세를 성초 총인님의 추대사에서 함께 나누고자 한다. 민족과 인류를 향한 복과 지혜 가득한 가르침을 진각종에서 펼쳐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축사를 통해 “추대법회를 계기로 진각종이 더욱 발전할 것을 기대한다. 나 역시 진각종의 가르침을 통해 배려와 맑고 투명한 사회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기법 기자 smile2@daum.net

눈으로 보고 가슴에 새기는 우리 문화재 ⑥

임금의 사부곡은 비석이 되고

봉선홍경사사적갈비 (奉先弘慶寺蹟碣碑) 국보 제7호

충남 천안시 성환읍 대동리 320번지 고려 현종



봉선홍경사는 고려 현종 12년(1021)에 창건됐다. 절 이름 앞의 '봉선(奉先)'은 절을 짓기 시작한 고려 안종(安宗)이 완성을 보지 못하고 붕어하자, 아들인 현종(顯宗)이 낙성한 후 선왕의 뜻을 받든다는 의미로 붙인 이름이다. 고려 제8대 임금인 현종은 거란의 침입으로 개경이 함락되자 도봉사로 피난했다. 그곳에서 임금은 불시에 의지해 외세를 물리치고자 대장경 6000권을 새겼다. 그렇다. 올해가 대장경 천년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씨앗을 심은 이가 고려 현종이다.

천년 전 임금의 사부곡도 들리지 않는 터인데, 절도 창건 관련 기록을 담아 1026년 세운 갈비(鿁碑)만을 남겨둔 채 보이지 않는다. 인근에는 1번 국도가 지나는데다가 규모에 맞지 않은 웅색한 보호각에 갇힌 갈비를 보고 있노라면 피난 갔던 임금의 답답함이 전해온다.

‘갈비’는 일반적인 석비보다 규모가 작은 것을 말한다. 대개는 머릿돌이나 지붕돌을 따로 없지 않고 비몸의 끝부분을 둥글게 처리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이 비는 거북받침돌과 머릿돌을 모두 갖추고 있어 석비의 형식과 다르지 않다.

거북 형태의 받침돌은 양식상의 변화로 머리가 용의 머리를 갖추고 있다. 머리 양쪽에 새겨진 기록을 담아 1026년 세운 갈비(鿁碑)만을 남겨둔 채 보이지 않는다. 인근에는 1번 국도가 지나는데다가 규모에 맞지 않은 웅색한 보호각에 갇힌 갈비를 보고 있노라면 피난 갔던 임금의 답답함이 전해온다.

조동섭 기자

승가 본연의 화합 정신으로 변화를

전국비구니회장 이·취임식

“승가본연의 화합정신을 항상 잊지 않고, 비구니 위상 정립과 범용사를 비구니 종합도량으로 쇄신하는데 주력하겠다.”

전국비구니회 사상 최초로 경선을 통해 당선된 명우 스님이 제10대 전국비구니 회장으로 취임했다. 전국비구니회는 11월 21일 전국비구니회관 범용사 대법당에서 제9·10대 회장 이·취임법회를 봉행했다.

명우 스님은 취임사에서 “전국비구니회의 주체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비구니 스님들이며, 범용사 역시 전국비구니 스님들의 수행도량이자 활동공간이다”라며 “하심하는 초심으로 돌아가 승가 본연의 화합정신을 항상 잊지 않고 여러분과 더불어 저의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전국비구니회 8·9대 회장 소임



제10대 전국비구니회장 명우 스님(오른쪽)이 취임법회 후 대중들로부터 꽃다발과 함께 축하 인사를 받고 있다.

에서 물러나는 명성 스님은 “회장 경선에 투표한 1500여 비구니 스님들의 뜨거운 관심과 열기를 보며 비구니 승가의 밝은 미래를 느낄 수 있었다”며 “비록 이 자리는 떠나지만 한국불교의 새 역사를 쓰는 일에 남은 생을 다해 변함없이 노력하겠다”고 이임사를 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축사에서

“명우 스님은 종단 최초의 상임포교사로 활동하면서 석남사를 포교중심도량으로 일구기도 한 선교를 겸비한 스님”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출범 50주년을 향한 전국비구니회의 화합을 바탕으로 한 변화와 개혁에 거는 기대가 크다”라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gmail.com

동국대 새 이사 일면·삼보·성타 스님

상임이사 성관 스님 교체로 학원운영 기조 변화 예상

조계종립 동국대 신임이사에 일면·삼보·성타 스님이 선출됐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이사장 정련)는 11월 24일 제267회 이사회를 열고 정년 스님(월정사 주지) 후임에 삼보 스님을, 성관 스님(로터스월드 이사장) 후임으로 일면 스님(前 군중특별교구장)을, 성타 스님

(불국사 주지) 후임에 성타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이에 앞서, 조계종 중앙종회는 삼보 스님과 도안 스님(법흥사 주지), 일면 스님과 정법 스님(중앙종회의원), 성타 스님과 종성 스님을 동국대 이사 후보로 복수 추천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gmail.com

성호 스님, 9820만원 추징 확정

재심호계원 23일 판결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승적 시비로 열번 처분을 받은 성호 스님(前 금당사 주지)에게 공판정지 5년과 변상금 9820만원 추징의 징계가 내려졌다.

조계종 재심호계원(원장 법등)은

11월 23일 제70차 심판부를 열고 성호 스님에 대한 재산비위를 인정해 이같이 판결했다.

21일부터 총무원청사 인근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성호 스님은 “호계원 징계를 인정할 수 없다. 사 회법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조동섭 기자

박구원 만평



부처님 손바닥 인걸...

“오늘 밤 선사님과의 대화는 세계의 놀라운 다양성과 국경을 넘어 다리를 잇는 인류 공동의 휴머니티를 우리에게 다시금 환기시킵니다.”

뉴욕 리버사이드 교회에서 펼쳐진 “세계평화를 위한 간화선 대법회” DVD 출시(btn)

“이번 역사적 행사를 통해 우리 모두를 한 자리에 모여 화합할 수 있게 하신 진제 선사님의 방편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 빌 클린턴 전 미 대통령

“이번 역사적 행사를 통해 우리 모두를 한 자리에 모여 화합할 수 있게 하신 진제 선사님의 방편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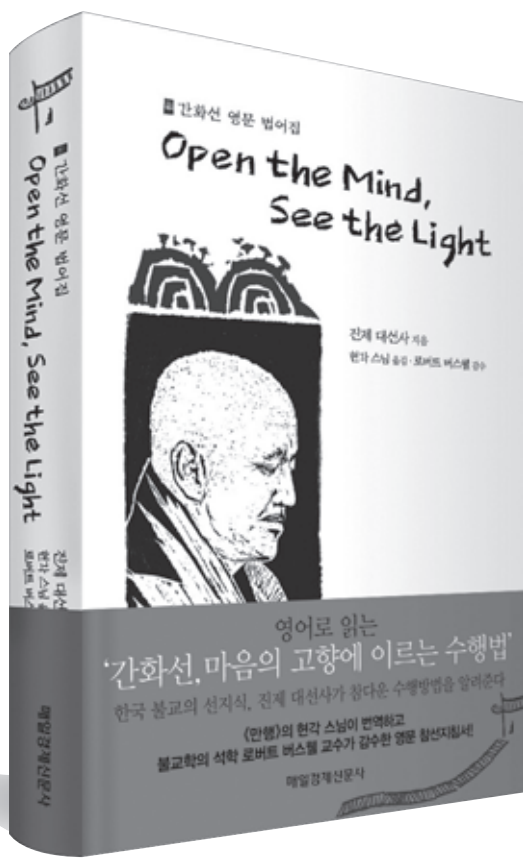
BTN 특집 진제 대선사 세계평화를 위한 간화선 대법회

2011. 9. 15 뉴욕 맨해튼 리버사이드 교회 · DVD 2개 세트 | 값 15,000원 · 구입문의 : 해운정사(051-746-2256)



세계화 시대, 국내 최초로 일반 독자들에게 소개되는 간화선 영문지침서!

Open the Mind, See the Light



이제, 세계의 지성인들이 참선을 배우고 삶의 지혜를 얻는다.

《만행-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의 저자 현각 스님이 번역하고, 세계적인 불교석학 로버트 버스웰 교수가 감수하고 극찬한 참선법문집!

동양정신문화의 골수인 간화선, 뉴욕의 상징인 리버사이드 교회에서 전 세계의 지성인들에게 깨달음과 감동을 말하다. ‘세계평화를 위한 간화선 대법회’ 법어 전문 수록.

“이 책에 실린 선사님의 가르침은 전통적인 것이지만, 그 응용에 있어서는 현대적입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깨달음의 방법에 관한 선사님의 생각과 통찰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 루이스 랭카스터 UCLA 명예교수

진제 대선사 부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유일한 법맥인 경허-혜월-운봉-향곡 선사님의 법을 이어받은 제 79대 법승으로 현 대한불교조계종 원로의원.

진제 대선사 저음 | 현각 스님 옮김 | 로버트 버스웰 감수 | 신국판 변형 양장 268면 | 값 20,000원